

온종일 감탄사를 연발하는 그곳 터키 카파도키아 괴레메

글. 심영우 KFN 국군방송 기술감독, 승중희 여행가



괴레메 마을 전경

영화 속 신비의 마을 괴레메

카파도키아는 괴레메, 네브셰히르, 카이세리 등 여러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그 중 괴레메는 터키에서 여행지로 가장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9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곳으로 화산암이 풍화되어 기이한 모양의 기둥과 바위들이 연신 감탄사를 연발시킨다. 여지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신비로운 괴레메의 풍경은 마치 우주에 온 듯한 착각까지 불러 일으킨다. 이곳의 이색적인 자연 경관은 만화 ‘스머프’, 영화 ‘스타워즈’의 모티브로도 활용되었다.

인생 버킷리스트 열기구

카파도키아 여행 중 단연 으뜸은 열기구 투어이다. 새벽에 출발해 약 1시간 정도 둥둥 떠다니면서 맞이하는 일출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열기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 어떤 감탄사로도 표현이 불가능할 만큼 멋있다. 수천 년 역사와 독특한 화산지역의 고장 카파도키아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너른 들판에 솟아오른 기이한 모양의 기둥과 바위, 기암괴석에 혼을 빼앗긴 순간 일출이 시작된다. 열기구를 타고 착륙하고 나면 샴페인을 터트리고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괴레메 버섯바위

열기구를 타지 않더라도 괴레메 선셋 전망대에 오르면 전망대 주위를 둘러싼 열기구 덕에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광경을 연출해준다. 인생샷을 남기기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괴레메에서 머무는 동안 아침 일찍 열기구가 만든 풍경은 늦잠을 잘 수가 없는 이유를 만들기 충분하다.



열기구 투어

ATV를 타고 둘러보는 괴레메 밸리

화산석으로 이루어진 괴레메의 비포장 길을 달리며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차로 다닐 수 없는 괴레메의 언덕, 계곡, 모래 언덕 등을 가로지르며 흥미진진한 모험을 만끽할 수 있다. 1시간, 2시간, 반나절 코스 등 다양하며, 탑승 시간에 따라 Cavusin, Rose Valley, Red Valley, Swords Valley, Love Valley 등의 코스를 거치게 된다. 해가 질 무렵에 ATV를 즐긴다면 환상적인 괴레메의 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다.



ATV 투어

로즈 밸리의 환상적인 선셋

카파도키아에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노을에 비친 계곡이 장미색 같다고 하여 로즈 밸리로 이름 붙여졌다. 해지기 전 약 2시간 전에 출발하는 코스로 걷는 동안 계곡 바위지대에 만들어진 동굴 교회나 가옥을 둘러 보기도 하고, 괴이한 모형의 바위를 구경하며 걷는다. 로마로부터 박해받은 기독교인들의 은신처로 사용된 동굴 교회와 벽화, 수도원 터가 남아 있어 가는 곳곳이 기독교 성지와도 같다.



로즈 밸리 선셋



괴레메 파노라마

카파도키아 속성반 그린투어

카파도키아를 제대로 여행하고 싶다면, 주요 스팟을 묶은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투어 중 그린투어는 카파도키아의 남서쪽을 둘러보는 코스로 약 9시간 정도 소요된다. 비둘기 밸리, 괴레메 파노라마, 데린쿠유 지하도시, 으홀라라 밸리&교회, 셀리메 수도원을 관람할 수 있다.

우치히사르 비둘기 계곡은 바위 계곡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많은데, 비둘기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기 위해 이곳에서 비둘기를 길렀다고 한다. 지금은 비둘기 배설물 거름을 잘 쓰지 않아 비둘기 개체수도 줄었다.

셀리메 수도원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만든 수도원이다. 멋진 기암 위에 세워진 수도원은 규모 면에서나 구조적으로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자랑한다. 이곳에 오르게 되면 보이는 멋진 전망도 빼놓을 수 없는데, 영화 '스타워즈'에 명감을 준 장소이기도 하다. 으홀라라 밸리는 화산암이 퍼진 카파도키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녹색 숲을 만나 볼 수 있는 곳으로, 남서쪽 투어가 그린투어라 이름 붙여진 이유이기도 하다. 계곡물을 따라 깊은 협곡을 걷다 보면 트레킹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곳 또한 기독교인들이 로마 군인들의 탄압을 피해 주거를 형성하였던 곳으로 많은 교회터를 만나볼 수 있다.

카파도키아 데린쿠유 행정구에 있는 큰 지하도시는 종교박해를 피해 그리스도교인들이 피난처로 숨어 지내던 곳으로 수용 규모가 3천~5만 명이 될 정도로 크다. 학교, 식당, 침실, 부엌, 창고, 와인 저장고 등 다양한 생활 시설이 갖춰져



비둘기 밸리



셀리메 수도원



셀리메 수도원 스타워즈 모티브



으흘라라 벨리



으흘라라 벨리 교회 벽화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터널들은 지상의 집들과 연결되어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 지하도시로 숨어 생활했다. 현재는 일부만 공개되어 있으며, 지상의 집들과 연결된 터널들은 아직도 마구간이나 창고로 사용되기도 한다.



데린쿠유 지하도시

터키에서 우유니 소금사막을 찾다

괴레메에서 1시간 30분쯤 차를 타고 이동하면 마치 우유니 소금사막을 방불케하는 소금호수 투즈 골루(Tuz Golu)를

만날 수 있다.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호수에 물이 차기 시작하지만, 한여름에 방문한다면 물이 증발되어 소금만 남아 멋진 광경을 만나볼 수 있다.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햇빛에 반사되는 소금호수는 카메라의 초점을 잃게 할 정도로 낮을 빼놓는다. 소금호수는 따로 만들어진 여행상품이 없기에 렌트나 택시를 타거나,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모여 운전기사가 포함된 미니밴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카파도키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 2박 3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워낙 매력적인 여행지라 이곳에서 일주일 넘게 머무르는 여행자가 많다. 열기구의 경우 날씨에 따라 당일 취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괴레메에 도착하는 당일부터 열기구를 탑승하는 것이 여행 일정상 유리하다. 또한 카파도키아 여행 스팟들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유여행자라고 할지라도 적절히 현지 여행사의 투어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소금호수 Tuz Golu